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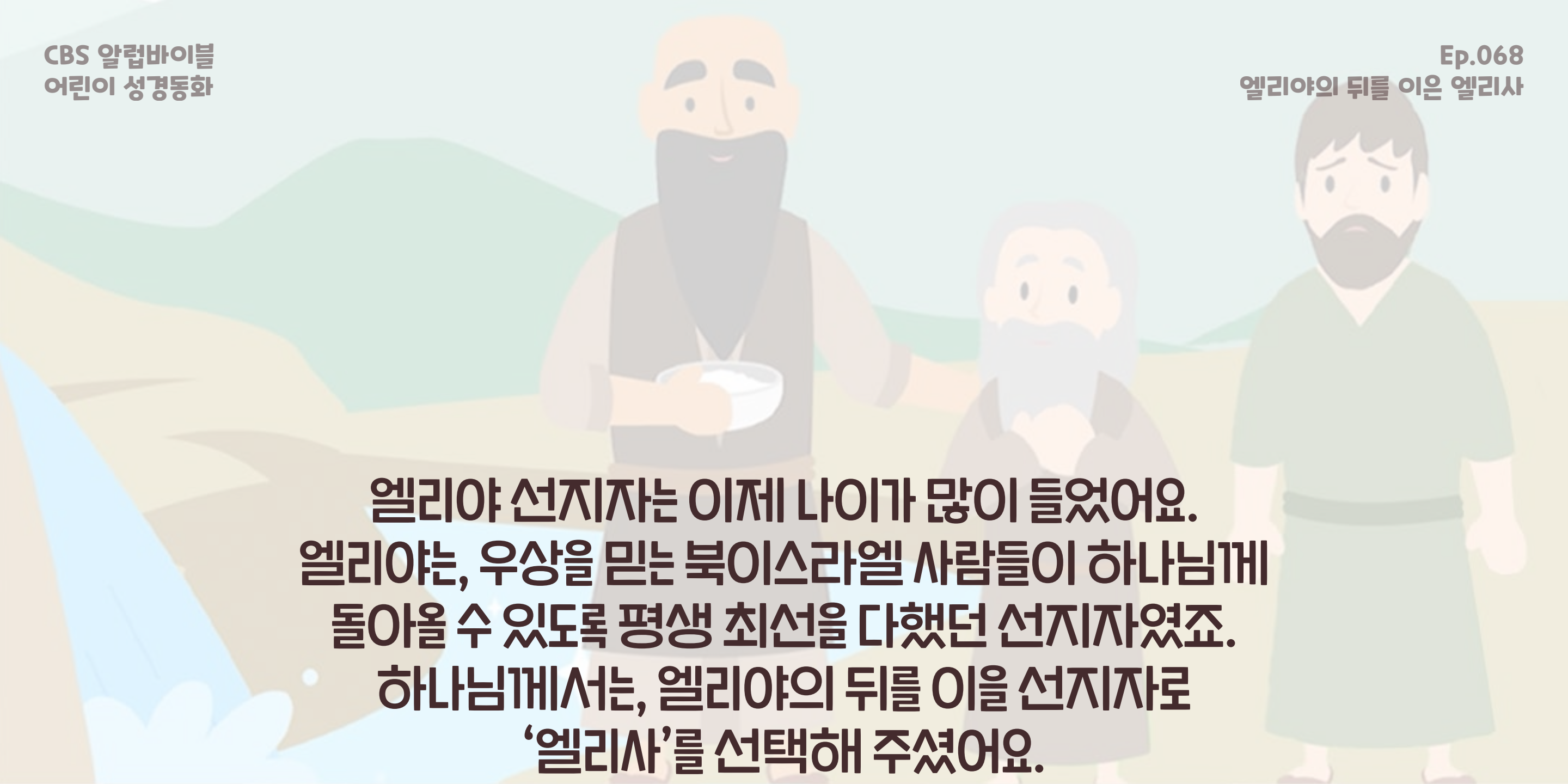
Ep.068

엘리아의 뒤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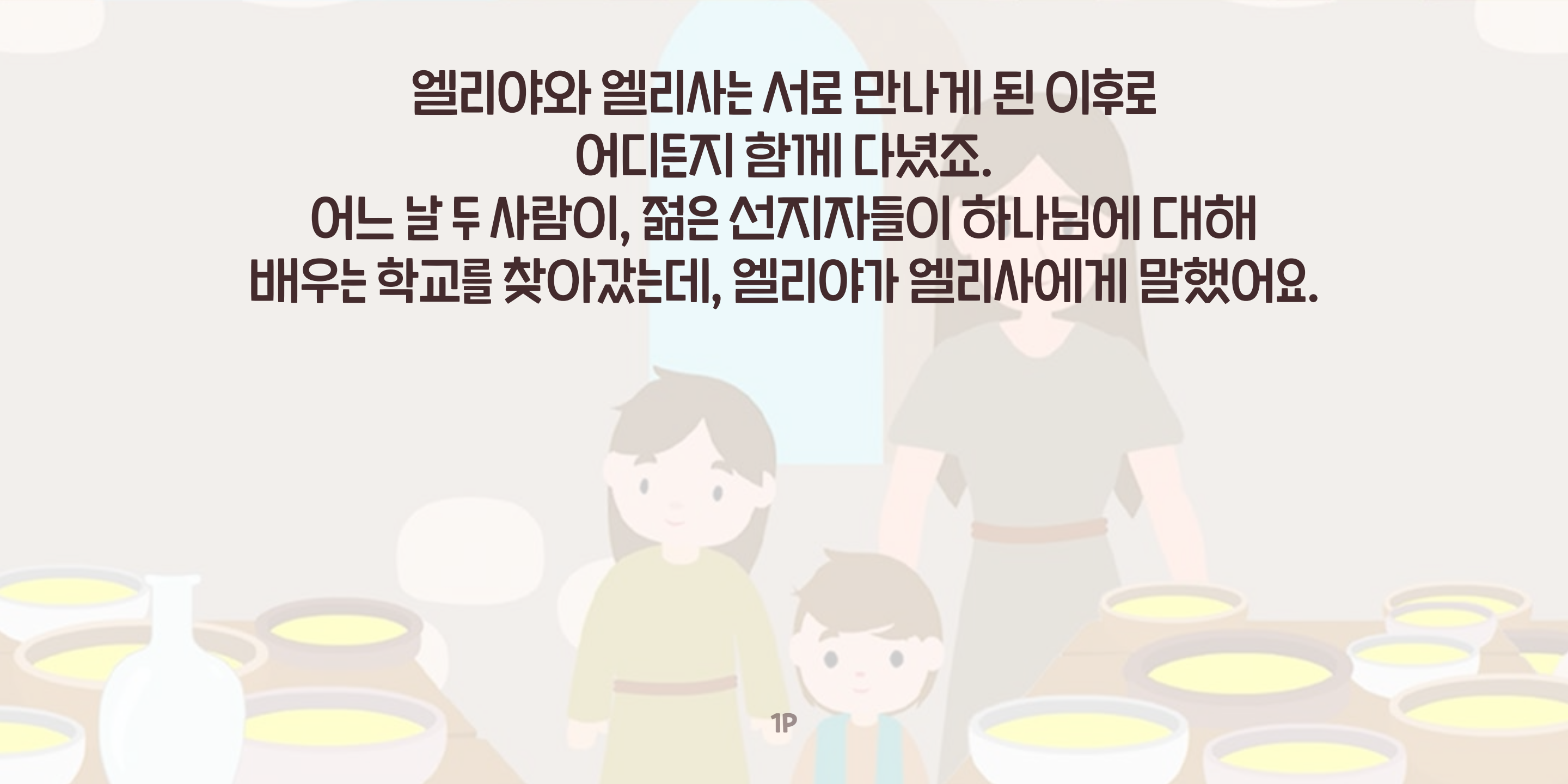
이은 엘리사

(열왕기하 2:1~25, 4:1~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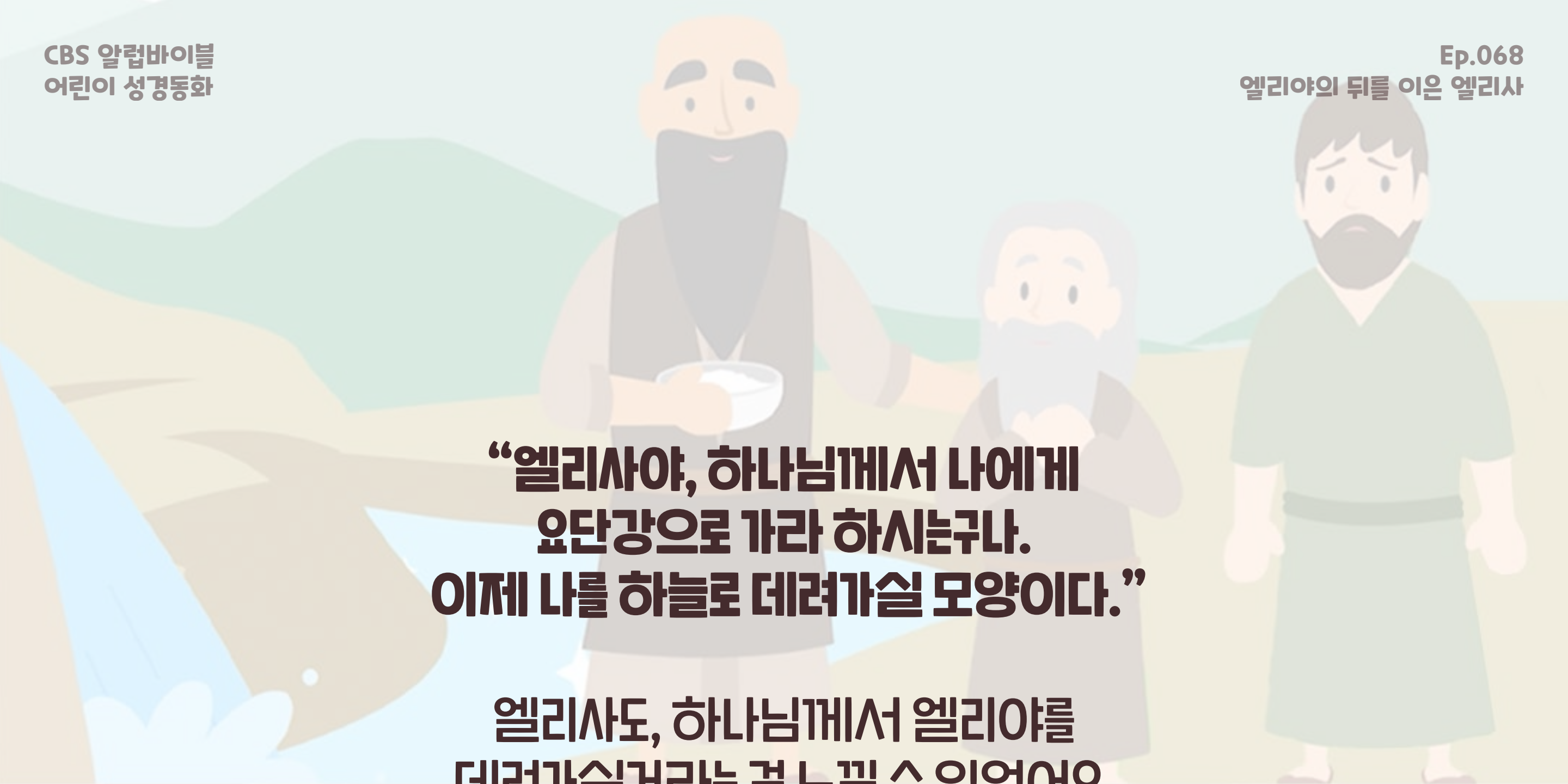




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.
엘리야는, 우상을 믿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
돌아올 수 있도록 평생 최선을 다했던 선지자였죠.
하나님께서서는,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
‘엘리사’를 선택해 주셨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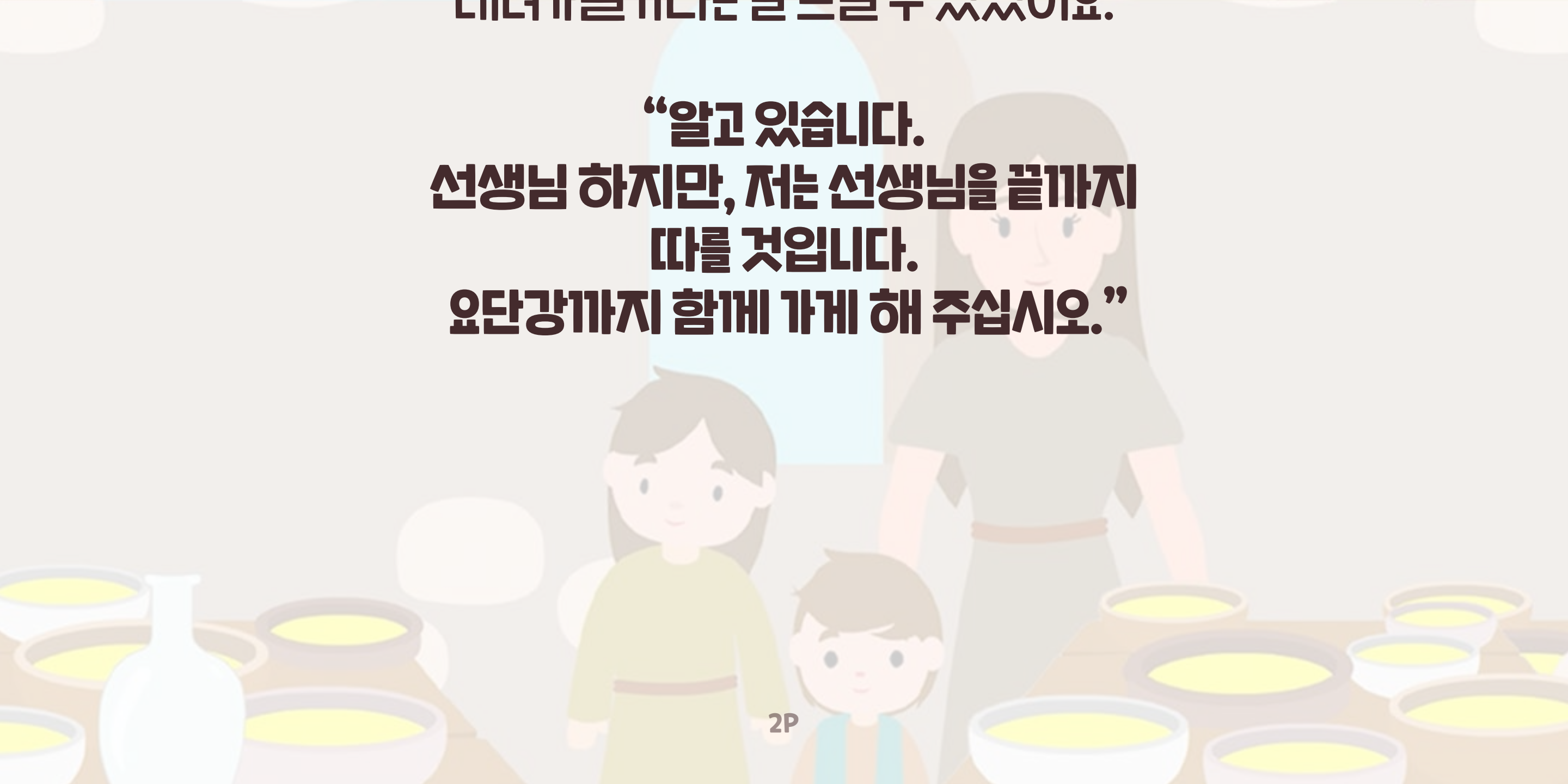


엘리야와 엘리사는 서로 만나게 된 이후로
어디든지 함께 다녔죠.
어느 날 두 사람이, 젊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
배우는 학교를 찾아갔는데,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어요.



**“엘리사야, 하나님께서 나에게
요단강으로 가라 하시는구나.
이제 나를 하늘로 데려가실 모양이다.”**

**엘리사도, 하나님께서 엘리야를
데려가실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.**



**“알고 있습니다.
선생님 하지만, 저는 선생님을 끝까지
따를 것입니다.
요단강까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.”**

그렇게 두 사람은 요단강으로 향했어요.
수십 명의 젊은 선지자들도 멀찍이 떨어져서
엘리아를 배웅하기 위해 따라나섰죠.
요단강에 도착하자 엘리아는 자기의 겹옷을 벗어 돌돌 말았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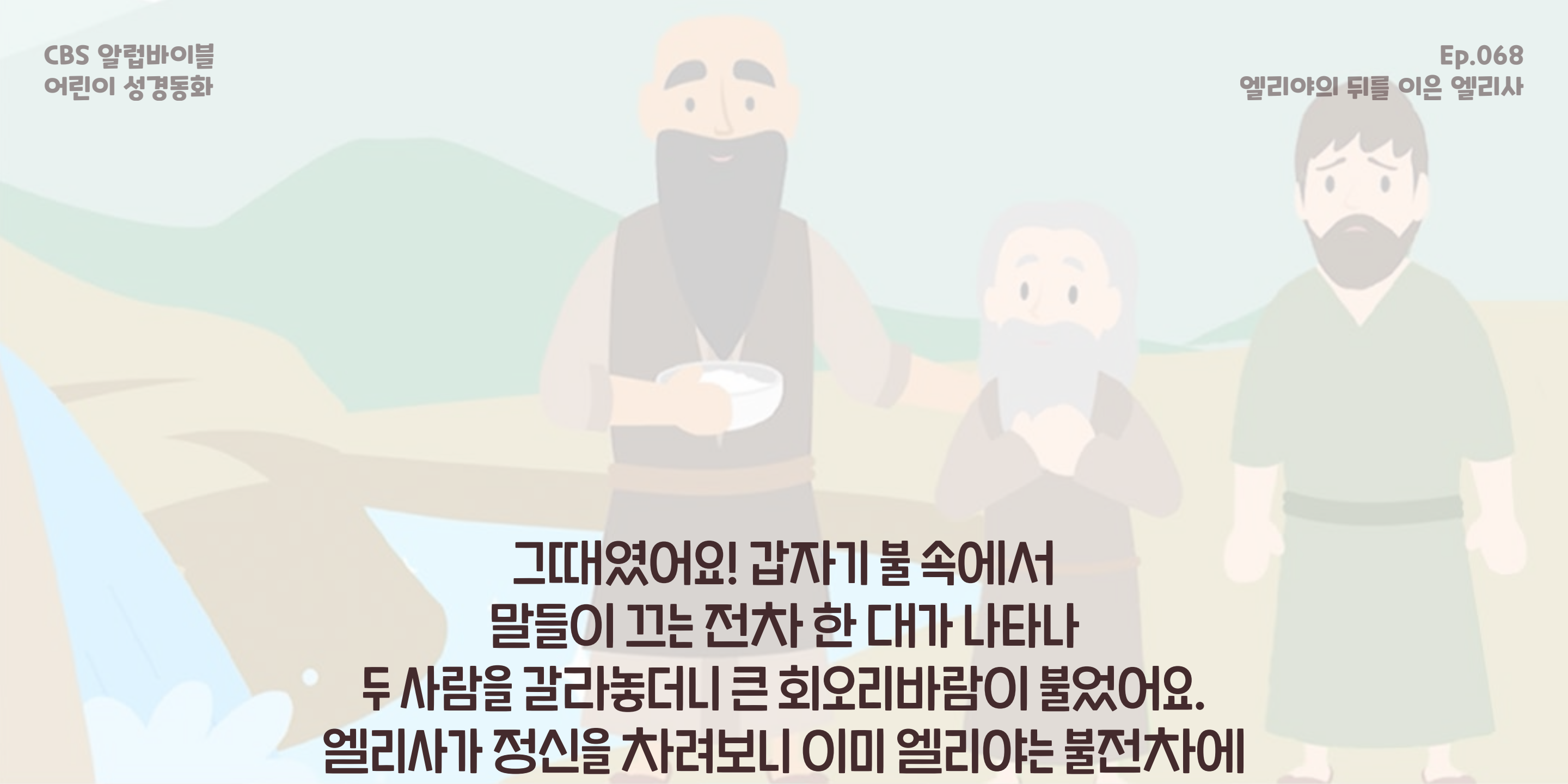
그리고 그 옷으로 있는 힘껏 강물을 내리쳤죠!
그러자 놀랍게도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더니
그사이에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!
엘리아와 엘리사는 담담하한 표정으로
그 길을 걸어서 강을 건너갔죠.

“엘리사야.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텐데
그전에 내가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게 있느냐?”

엘리야의 질문에 엘리사가 대답했어요.

“예,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주신 믿음의 능력
그두 배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.”

“허허. 네가 참 어려운 것을 원하는구나.
엘리사야,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
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네가 만약 볼 수 있다면
너에게 그능력이 생길 것이란다.”



**그때였어요! 갑자기 불 속에서
말들이 끄는 전차 한 대가 나타나
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큰 회오리바람이 불었어요.
엘리사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엘리아는 불전차에
올라 탄채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죠!**

**엘리사는 이제 엘리아와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에
마음이 너무나도 슬펐어요.**



땅바닥에는 엘리아가 입고 있던 겹옷만이 남겨져 있었고
엘리사는 그 옷을 주웠죠.

엘리사는 요단 강가에 서서, 엘리아가 그랬던 것처럼
엘리아의 겹옷으로 강물을 힘차게 내리쳤어요.

“엘리아 선생님의 하나님이지여 어디 계십니까!”

엘리사가 하늘을 행해 이렇게 외치자
이번에도 강물이 똑같이 양쪽으로 갈라지더니
마른 길이 드러났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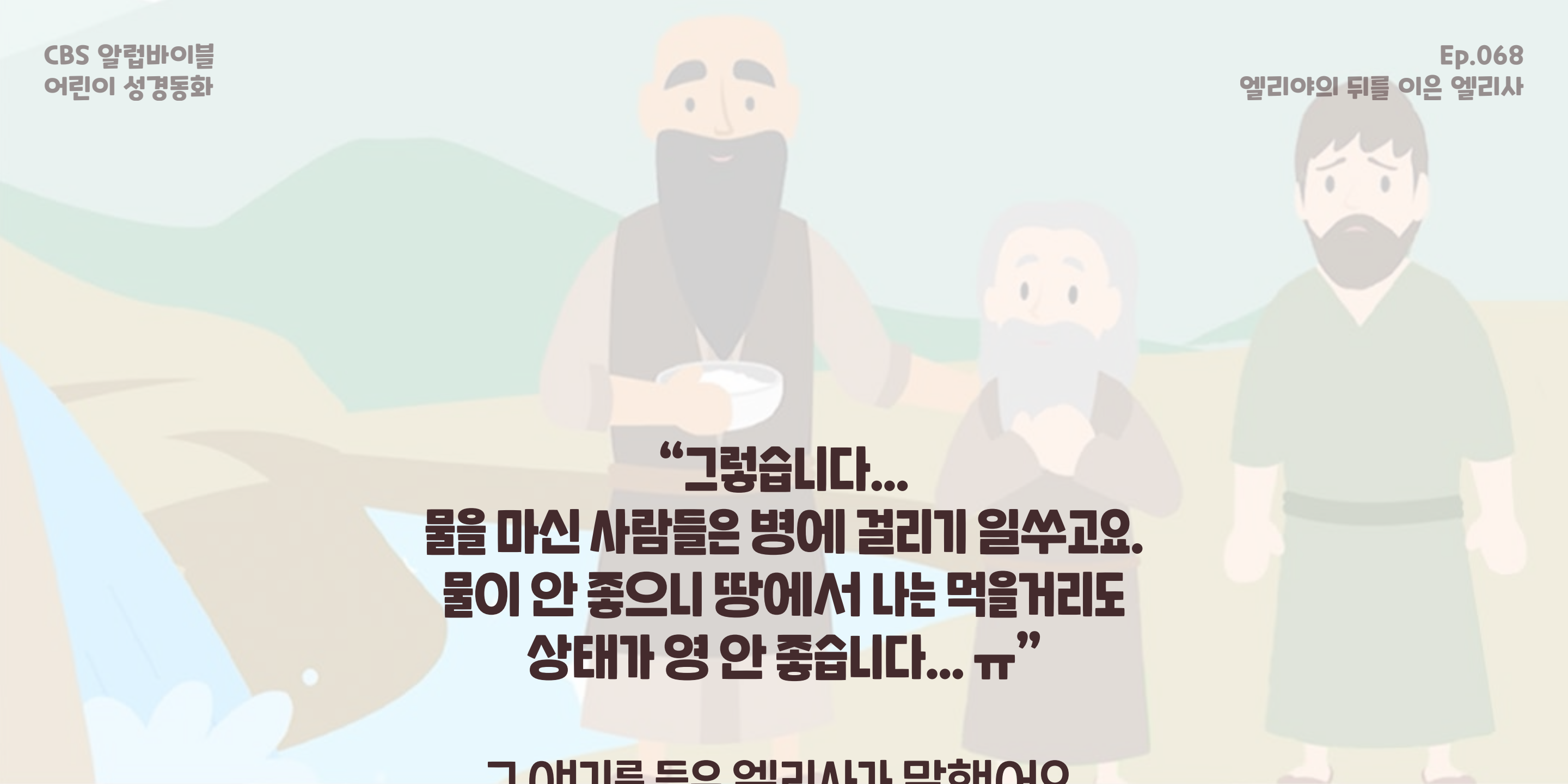
그러자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던
젊은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.

**“엘리아 선생님의 믿음의 능력이
이제 엘리사 선생님께로 전해졌어요!”**

**정말이었어요. 이제 엘리사에게는
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힘이 생겼죠.**

**엘리사가 ‘여리고’라는 곳에서 지나고 있을 때
하루는 그 지역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말했어요.**

**“선생님, 선생님께서도 이제는 아시겠지만
이 여리고 땅은 살기는 참 좋은데
물의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.”**



**“그렇습니다...
물을 마신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 일쑤고요.
물이 안 좋으니 땅에서 나는 먹을거리도
상태가 영 안 좋습니다... ㅠ”**

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말했어요.

“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시게.”

**사람들이 소금을 가져오자
엘리사가 샘이 솟는 곳으로 향했어요.**

그리고는 샘에 소금을 뿌리더니 이렇게 말했죠.

**“자, 이제부터는 이 물을 마시고 아프거나
열매맺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요.
하나님께서 방금 이 물을 고치셨소이다.”**

엘리사가 말한대로 그 물은 아주 깨끗해져서
이후로 사람들은 신선한 물을 마시고
사용할 수 있었답니다!

엘리사가 보여준 기적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.

평소 엘리사와 알고 지내던 한 젊은 선지자 가정이 있었는데
어느 날 그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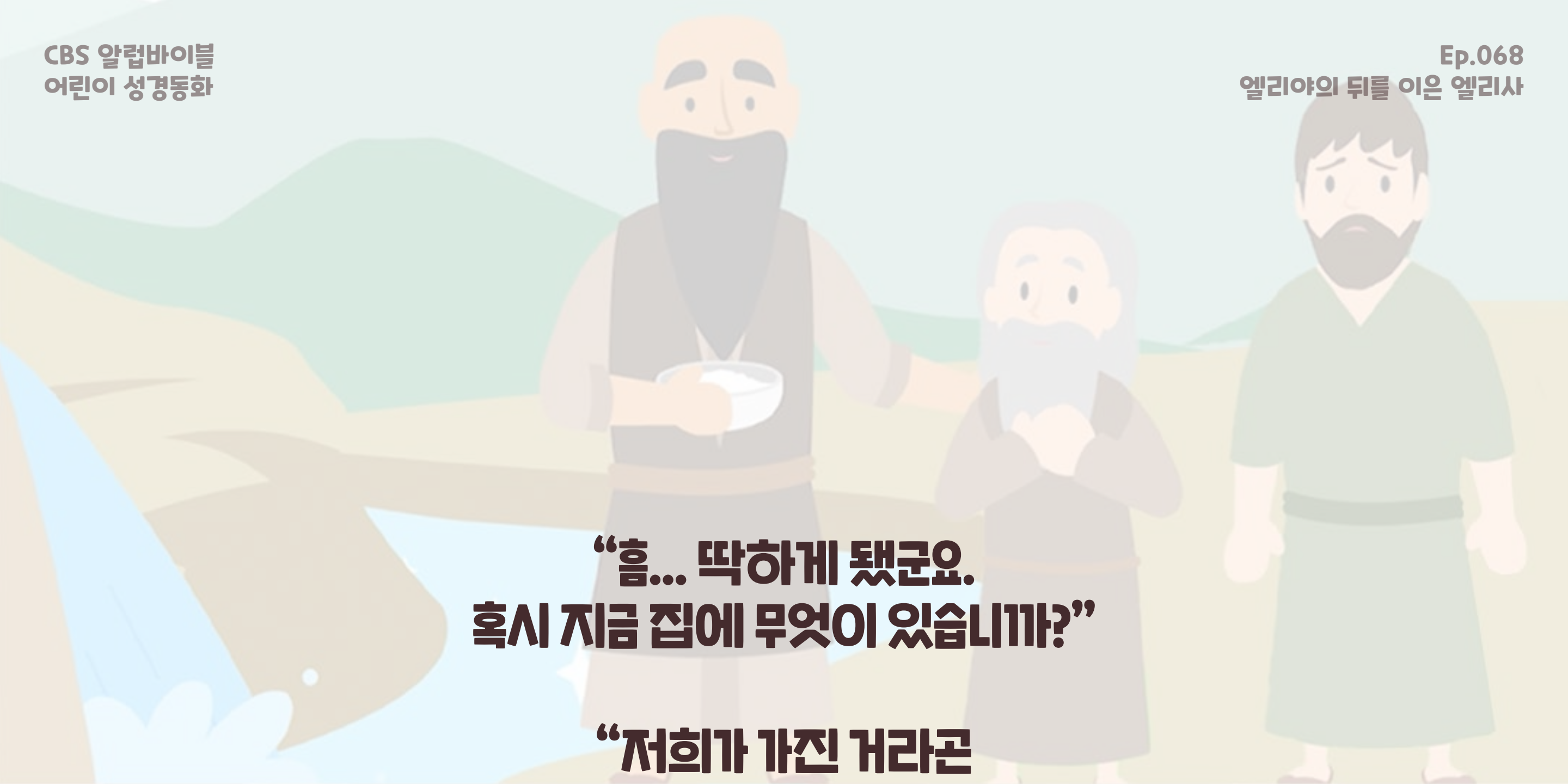
그 집에는 남자아이 두 명이 있었고
이제는 어머니 혼자 남아 두 아들을 돌보아야만 했죠.
하루는, 그 가정에 인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
한 사람이 찾아왔어요.

“당신의 남편이 살아생전 나에게 큰 빛을 지었소!
남편은 이미 죽었으니 뭐 어쩌겠소.
아내인 당신이 대신 빛을 갚아야겠소만? 에헴.”

하지만, 가난한 여인은 빛을 갚을 돈이 없었어요.
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.

**“돈이 없다면 저기 저 두 아들이라도 내놔야지!
다음에 내가 찾아올 때까지 돈을 구해놓지 못하면
저 두 아들녀석들을 데려다가 내 종으로 삼을 것이요!
그러게 왜 돈을 빌려서 말이야.. 에잉...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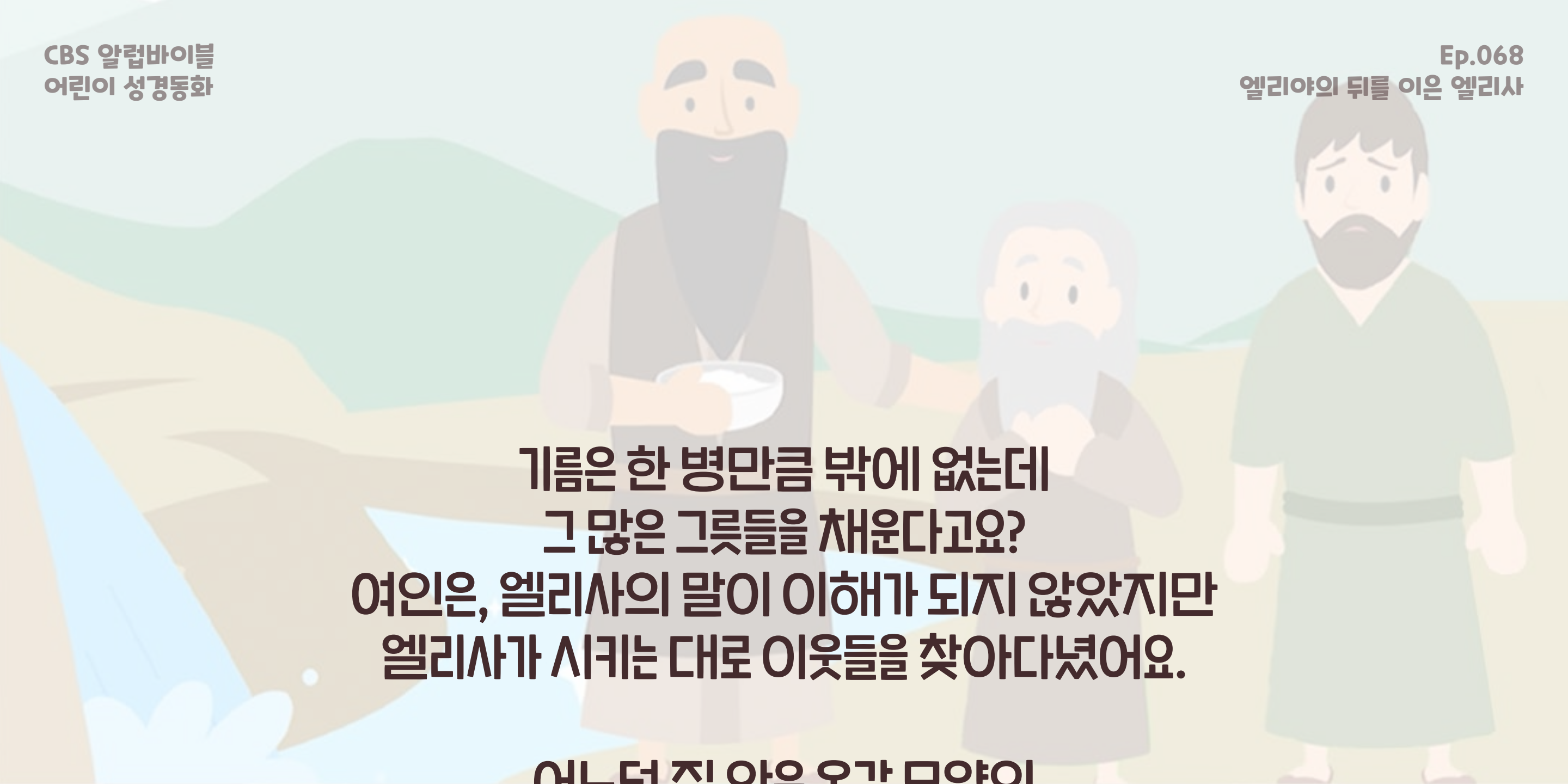
여인은 너무나도 막막했어요.
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울고만 있다가
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리게 됐죠.
여인은 당장 엘리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어요.



**“흠... 딱하게 됐군요.
혹시 지금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?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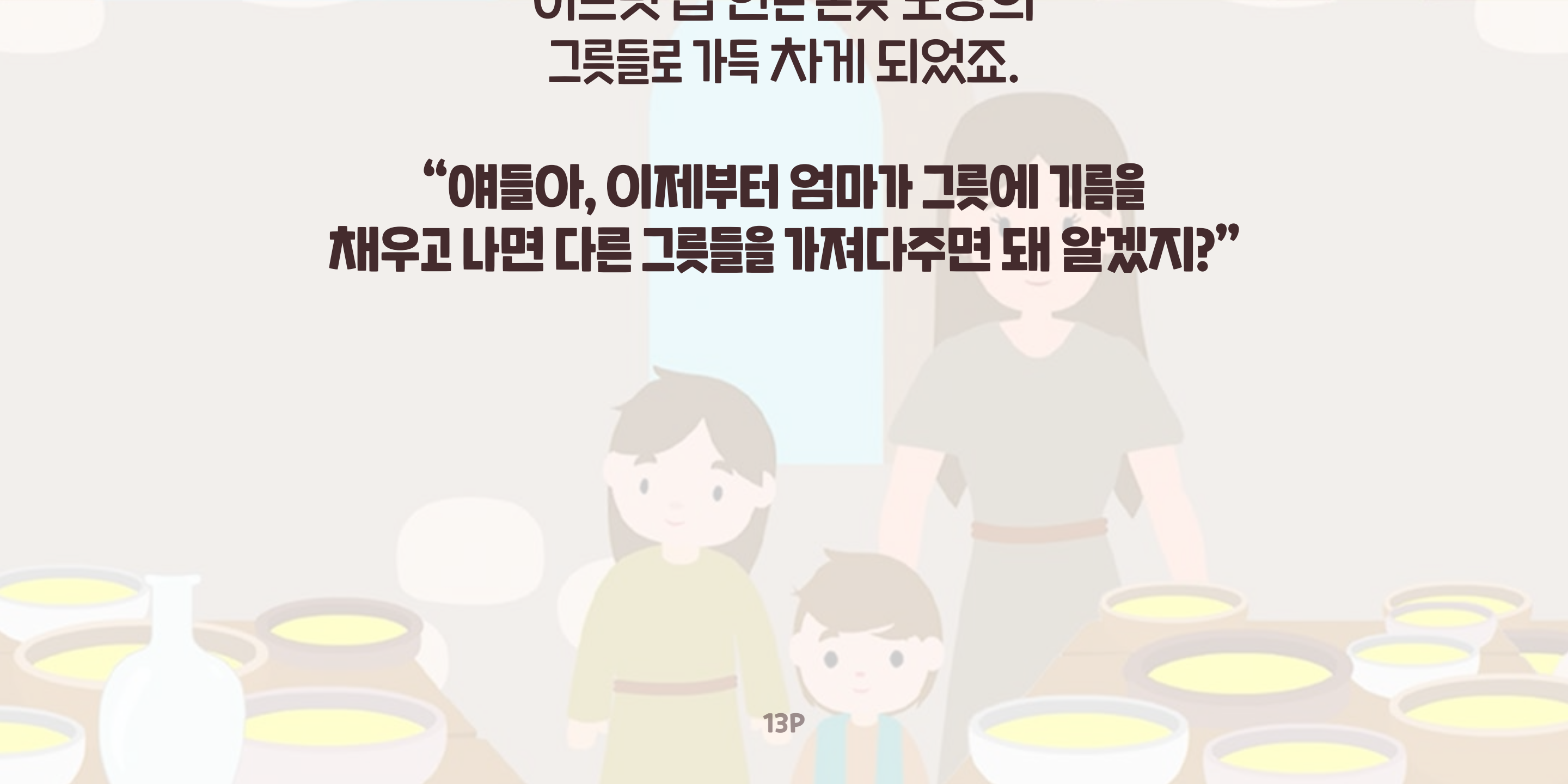
**“저희가 가진 거라곤
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선지자님...”**

**“자, 그럼 지금부터 이웃 사람들을 집집마다
찾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시오.
그리고 그 빈 그릇들에 집에 있는 기름을 부어보시오.”**



기름은 한 병만큼 밖에 없는데
그 많은 그릇들을 채운다고요?
여인은, 엘리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
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이웃들을 찾아다녔어요.

어느덧 집 안은 온갖 모양의
그릇들로 가득 차게 되었죠.



“얘들아, 이제부터 엄마가 그릇에 기름을
채우고 나면 다른 그릇들을 가져다주면 돼 알겠지?”

“네 엄마.”

“알겠어요 엄마.”

**그리고 그때부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.
한 개, 두 개, 세 개... 그릇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도
기름의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?**

**어느덧 여인과 아들들은, 빌려온 그릇 전부를
기름으로 가득 채웠어요.
그제야 기름병에서는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았죠.**

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여인에게
웃으며 말했어요.

“허허. 잘 됐군요.
그 정도 양의 기름을 내다 팔면 빛을 갚고도
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. 허허허.”

그제야 여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.
기쁨의 눈물이었죠.
세 식구는 활짝 웃으며 서로를 꼭 안아주었고
그릇을 빌려준 이웃들도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!